불교 이끄는 사부대중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소통으로 신도 조직화 건실히 이루겠습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재계순위 17위인 중흥건설 부회장이자 대우건설 회장. 지난 10월 1일 조계종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취임한 정원주 회장의 세간에서의 직함이다. 중앙신도회장 취임 직후인 10월 10일 대우건설 회장 집무실에서 만난 정 회장은 소탈하고 검박했다. 무엇보다 ‘산’과 ‘불교’에 대한 애정이 집무실 곳곳에 묻어났다. 느림보 거북이 단장으로서 2022년 4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3일까지 백두대간 종주를 완료한 기념 사진이 집무실 한켠에 걸려있고, 책상에는 대찰(大刹)에서 봄직한 커다란 목탁이 놓여 있었다.

불교와의 인연 역시 ‘산’과 연결된다. 어린 시절 기도 연등을 달기 위해 사찰에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종종 산사를 찾던 것이 나이 들어 등산을 하면서 사찰 참배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불교와도 가까워졌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등산을 하면 꼭 산사와 산내 암자들을 찾게 되더군요. 그렇게 찾은 사찰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불보살님께 기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불교방송 운영에도 참여하고, 네팔의 히말라야에 가서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동산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를 친견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자연스럽게 찾아 온 것 같아요. 제 삶에 스며든 것이죠.”

불자로서 한국불교 장자 종단 중앙신도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정 회장은 “감동,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과 임무가 있음을 안다”며 말을 이었다.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 속에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국난극복에도 앞장서왔고, 국민들의 삶 속에서 위안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지금 한국불교는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인류 평화를 이끌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내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죠. 그에 걸맞는 기념행사와 사업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절에 중앙신도회장으로서 해야할 일도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단이나 함께하는 신도회 임원들에게 누가 되거나 스스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 회장은 회장 당선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전법·포교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불교에 스며들었던 자신의 경험이 있기에 할 수 있는 약속이었다.



정원주 회장은… 1968년 광주광역시에서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광일고등학교와 호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동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장을 강조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흥주택 건설현장을 누볐다. 2014년 BBS 광주불교방송 감사를 역임하고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경제분과 수석부회장, 2024년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 ·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재 중흥그룹 부회장, ㈜헤럴드 미디어 그룹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 대우건설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김민재 기자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사찰에 갔던 기억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는 것에 거리감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들의 탈종교화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필수입니다. 근엄한 분위기의 사찰에도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을 경내에 만들면 신도들이 절에 올 때 자녀, 손주들과도 편하게 함께 올 수 있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조계종은 내년 중앙종무기관 개편을 통해 기존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된다. 중앙신도회도 종헌기구로서 변화하기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정 회장은 중앙신도회 제28대 집행부 주요 사업 계획으로 △조직 및 법령 정비 △신도 단체간 협력 시스템 강화 △선명상 대중화 사업 동참 △청년 포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조직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1일 제28대 회장으로 취임
“후회하지 않는 활동할 것” 소감
내년 70돌 신도회, 중앙조직 정비
“중앙이 살아야 추진 동력 살아나”
“‘인연’ 중요시…소통으로 이끌 것”
진우 스님에게 ‘도해’란 법명 받아
등산 애호가…山寺 찾아 신심 고양
“불교와 함께 성장하는 언론 되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계기로 중앙신도회 역시 불합리한 법령 및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흩어진 조직들의 관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몇몇 교구본사에는 신도 조직이 없어 새로 구성해야 할 상황입니다. 직능조직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정체되고 위축됐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 조직이 살아야 여러 사업 추진 동력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삶에 있어서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김홍빈 대장과의 인연을 보면 알 수 있다. 정 회장은 김 대장의 후원회장이 된 후 그와 함께 2016년 낭가파르바트, 2017년 로체, 2018년 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했고, 2021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74m)에서 전해진 김 대장의 비보 후에는 상주 역할을 자임하며 5일간 상가를 지켰다. 이후에도 김 대장의 기록집 〈김홍빈 희망을 오르다〉 출간에 참여했고, 그를 기리는 추모사업회인 (사)김홍빈과희망만들기의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조직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정 회장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회사나 모든 단체는 함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사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만 단체나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죠. 중앙신도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중앙신도회 실무를 알긴 어렵습니다.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신도회에서 오래 활동한 임원들이 더 잘 알겠지요. 저는 낮추고 소통하고 경청할 뿐입니다. 10월 26~27일 중앙신도회 임원들과 교구신도회 임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인도순례도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신도 조직을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건설사업가로서 정 회장은 해외 건설 수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한국형 신도시 스타레이크시티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캄보디아로도 사업 영역 확장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한국과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제 법명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바다를 건너다’라는 뜻의 ‘도해(渡海)’입니다. ‘고해의 바다인 향수해를 건너 번뇌를 벗어난 수미산에 이르라’는 의미라고 스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사업을 하면서 ‘이젠 해외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해외를 자주 나가 사업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해’라는 법명이 또 다른 의미로서 저에겐 뜻깊게 다가와서 좋아합니다.”

“시간 날 때면 사찰에 가서 주변의 안녕을 기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정 회장은 경영 중 어려움과 마주하면 진우 스님이 제안한 선명상을 하며 감정의 진폭을 줄인다.

“선명상 아카데미에서 진우 스님께서 ‘쉘 패스(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 선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기에 힘듦도 어려움도 지나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좋아해서 생활화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환호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불자가 되는 과정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창간 30주년을 맞는 본지에 축하 인사와 격려도 전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활동력이 있는 청년의 시기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이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가는 향후 30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현대불교신문의 사시처럼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 8017-1010 ⓕ 8017-1011